



생생리포트

창조인재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 I. 창조시대와 창조인력
- II.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현황과 과제
- III. 창조인재 양성을 위한 제언

서울산업진흥원 창조산업본부

창조인재팀

문경일 팀장 mkhana@sb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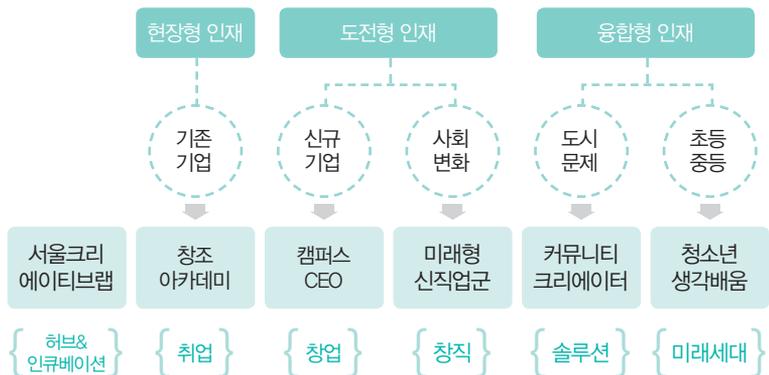
창조인재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I. 창조시대와 창조인력

창조시대에는 창조적 인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창조적 인재를 의미하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로 창조산업으로 정의된 분야의 지원이나 특정 개인의 창조 역량을 강조하는 데에만 창조적 인재에 관한 논의가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

서울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12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단계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1단계 사업 가운데 창조 아카데미 사업과 캠퍼스 CEO 사업, 서울 크리에이티브 랩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을 시작하면서 청소년 생각배움, 미래형 신직업군 사업을 새로 진행 중이다. 서울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창조적 인재 자체보다 창조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에 어떤 일자리와 어떤 역량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서울창조전문인력



[그림 1] 서울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인재상과 주요 사업

인재 양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가 원하는 바람직한 인재상을 먼저 정립하고, 어떤 분야에서 이들 인재가 활약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뚜렷한 사업의 지향점을 설정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창조적 인재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강화함으로써, 개개인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그러나 인재 양성사업의 목표가 일자리 창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업은 양성된 인재를 이용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서울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창조경제시대에 필요한 인재, 통섭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이 사회의 모범을 심는 것과 같고 이를 위한 사회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목표를 한 가지 사업만으로 모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재 양성사업은 기존 외부 시스템 및 자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젊은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견하고 강화해 나갈 기회를 창출하는 것에 주력하고자 한다.

Ⅱ.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현황과 과제

1. 창조 아카데미

기업 등의 조직은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발맞추어 조직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창조적 인력이 필요하다. 창조적 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은 산업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현장 중심적이며 사회 수요에 부합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창조 아카데미는 서울에서 일정 규모의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노동 수요가 예상되는 IoT-UX, MICE, 정보보안, 스마트 디바이스, 공연예술, 3D 프린팅, 오픈 소스, ICT 융합, 멀티 플랫폼, 정보 포렌식 분야를 대상으로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 분야의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대학, 협회, 기업이 함께 컨소시엄의 주체가 되어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원들이 기업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갖추는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진다.

〈표 1〉 창조 아카데미 주요 선정분야 및 참여기관

분야	참여기관	사업 내용
IoT-UX	연세대학교, 대한사용자경험전문협회	3세대 비즈니스 패러다임, 사물인터넷-UX 융합인재 양성
정보보안	국민대학교,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정보보호 프로젝트, 시스템 보안(기밀 중심), 비IT 계열 보안교육 확대
MICE	경희대학교, 한국PCO협회 한국이벤트프로모션협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벤션·전시·이벤트 전문 인재 양성
오픈 소스	한양대학교, 국민대학교 시립대학교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	공개 소프트웨어 특성화 교육을 통해 고급 개발인력 양성
스마트 디바이스	광운대학교, 한국전자정보통신 산업진흥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임베디드 SW에 기반을 둔 차세대 디바이스 프로그래머 양성
ICT 융합	서강대학교,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숙명여자대학교	고객가치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과 IoT 프로토타입 제작
공연예술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공연장매니저협회, 문화예술서비스협회, 좋은공연만들기협의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하우스매니저 등 공연 분야 여성특화 인력 양성
3D 프린팅	홍익대학교, 한국앵용합산업협회, 3D융합산업협회	모바일 디자인, UX 디자인, 3D 프린팅 등을 융합한 디자인 프로젝트
멀티 플랫폼	방송정보국제교육원, 한국미디어융합산업협회,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스마트 디바이스 환경에서 다(多)플랫폼 간 UX를 적용한 연계시스템 구현
디지털 포렌식	한국IT직업전문학교,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전문 보안기술자 양성 (사이버범죄 증거 자료수집, 보안 취약점 분석 등)

2. 미래형 신 직업군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새롭게 나타나는 노동 수요가 있다. 이 새로운 노동시장은 기존 역량의 융합으로 만들어지거나, 틈새시장을 키우거나,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직업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들은 유형은 다르지만 미래의 노동 수요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미래형 신 직업군 사업은 취업 아니면 창업이라는 우리 사회의 이분법적인 노동시장 진입의 대안으로 사회 변화에 따라 향후 노동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 직업군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울이 갖는 특성을 살려 사회서비스, 디지털융합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미래형 신 직업군 사업은 새로운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단체나 기관(예를 들어 업사이클링 전문기관 등)이 중심이 되어 핵심역량을 교육한다. 이 핵심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요기관과의 컨소시엄이 필수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으로만 끝나서는 일자리로 바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추기 위해 창직 플랫폼(예를 들면 협동조합, 사단법인이나 온라인 플랫폼 등의 형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표 2〉 미래형 신 직업군 주요 분야 (2015년 선정분야)

신직업명	참여기관	사업 내용
데이터 디자이너	뉴로 어소시에이츠	데이터 분석부터 시각화까지 전 과정을 다루는 융합 직업
스마트 영상작가	(사)50플러스 코리아	아날로그 감성으로 가족, 단체, 기업 역사를 디지털 영상으로 기록하는 직업
전문 업사이클러	소셜이큐	어제의 물건을 내일의 가치로 바꾸는 창의적인 전문 업사이클러
사물인터넷(IOT) 보안 전문가	(주)에스아이 에스티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장치에 보안기술을 적용한 융합 직업
Edu-Toolkit 디자이너	상상우리	교육 기획력과 디자인 역량을 바탕으로 한 교육용 툴킷 개발 전문 직업
IP 디자이너	디자인 아이피	디자인 창출에 기여하면서 법과 지식재산권을 알고 활용/관리할 수 있는 직업
아트 커뮤니케이터	예술로 생생디자인	예술창작 활동을 통해 소통하며 개인과 사회를 치유하는 전문 직업

3. 캠퍼스 CEO

캠퍼스 CEO 사업은 경영 전반의 이론과 실무에 관해 체계적으로 훈련된 창업가(entrepreneur)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이들 중 뚜렷한 가능성을 보이는 벤처 창업가(startup)들은 서울시, 중소기업청, 교육부, 대학 자체 창업 보육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캠퍼스 CEO 육성과정은 서울 소재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경영 이론과 실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창업 저변을 확대하고, 젊은 세대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청년 창업가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각 대학들도 재학생 창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창업 지원단과 같은 창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캠퍼스 CEO 사업은 앞으로 이들 프로그램들과 적극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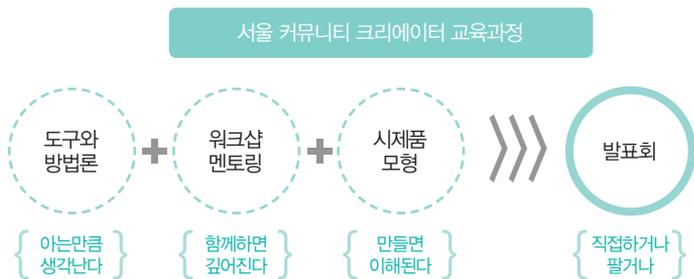
〈표 3〉 캠퍼스 CEO 참여기관 및 주요 사업내용

참여 기관	사업내용
건국대	기초-심화-실무과정의 체계적 커리큘럼 및 창업선도대학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창업아이템 발굴을 넘어 학생 창업까지 지원
고려대	이론-실전-R&D CEO과정의 단계별 커리큘럼 및 다양한 행사지원 (워크숍, 경진대회, 홈커밍데이), 투자유치기회, 글로벌 시장진출 기회 확보
국민대	기본과정(아이디어 발굴)과 특화과정(SNS 마케팅, 창업 전문가) 운영,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화, 창업 보육, 성장지원의 체계적 지원 인프라 확보
동국대	기초-기본-심화-실전 과정의 전 주기적 강좌 운영 및 지역 사회 연계형 특성화 프로그램, 전담 멘토제, 다양한 연계지원, 우수수료생 관리 등 다양한 사후관리 지원
동양미래대	투 트랙형(프로젝트형/일반형) 창업 강좌 운영 및 창업/작품개발 동아리 중심으로 사업화 추진 및 창업 인프라를 통한 후속지원
명지전문대	실전형 위주의 창업강좌 운영 및 창업보육 센터, 창업 동아리, 협동조합, 경진대회 등 다양한 사후관리 지원
서울과기대	티움(창업 강좌, CEO특강, 멘토 런치)-키움(창업 동아리, 경진대회, 원스톱 컨설팅)-피움(창업, 창직, 스타트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
서울대	기업가 정신, 기술 창업, 특허 등 학생 맞춤형 창업 강좌 운영, 엑셀러레이팅 (Be the Rocket), 밸류업(해커톤, 창업포럼) 등 다양한 사후관리 지원
세종대	창업 관련 교양필수 과목 개설 및 융합창업 연계전공 개설을 통한 다양한 기회 제공, 창업현장 실습, 경진대회, 창업 캠프 등 다양한 사후관리 지원
숙명여대	여대생 대상 다양한 창조적 과제 수행 중심의 강좌 운영을 통한 잠재력 개발, 직무 역량 강화,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 기회 제공

참여 기관	사업내용
송실대	창업 장벽 허물기 프로젝트(실전창업 기초, 실전창업 심화, 비교과과목) 및 창업 동기 개발-교육지원-기술지원-자금지원 등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세스 구축
연세대	기업가정신 등 창업역량 강화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창업 강좌 운영 및 연세 학생벤처센터 입주지원 등 다양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진행
이화여대	기업가정신 함양-사업계획서 작성-제품(서비스)개발의 여성 맞춤형 창업을 위한 체계적 창업 강좌와 스타트업 레지던스(몰입형 창업) 등 사후관리 인프라 구축
인덕대	캡스톤 디자인, 콘텐츠, 벤처기술, 디자인 등 다양한 커리큘럼 및 창업선도대학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아이템 발굴부터 학생 창업까지 체계적 지원
중앙대	아이디어 발굴-시제품 제작-사업화과정의 체계적 커리큘럼 및 링크 사업단 관련 지원 연계를 통해 창업 아이템 발굴을 넘어 학생 창업까지 지원
한양대	창업 강좌 운영-사업모델 개선 및 보강-창업성공-매출, 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창업 전 주기 지원시스템 및 자체 엔젤투자 클럽 등 투자인프라 구축
한양여대	IT 관련 이론, 기술, 아이디어, 트렌드 전반을 교육하는 강좌 운영 및 입주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청년 여성 창업 활성화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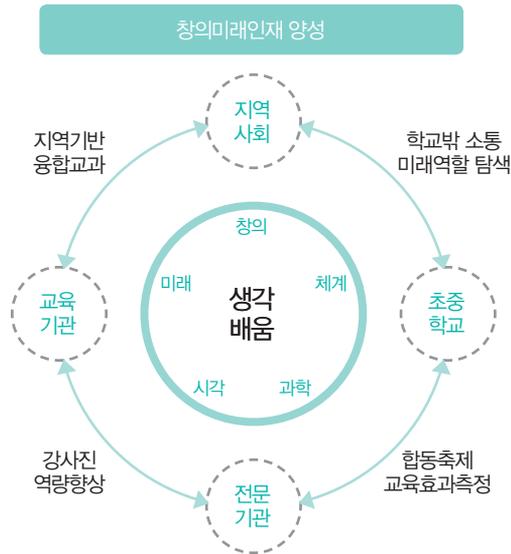
4. 서울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서울 커뮤니티 크리에이터는 서울의 미래 도시사회 문제에 대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일상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반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용자 경험, 인포그래픽, 창의성 등 다양한 기초 역량 교육과 미래 통찰, 리서치, 서비스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심화 역량 교육을 통해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제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는 시제품이나 작동 모형을 만들어 관련 공공 기관, 민간기업, 지역사회단체 등의 집행기관에 소개하고 채택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5. 청소년 생각배움

청소년들은 매우 중요한 미래의 인재이다. 청소년 생각배움 사업은 초등·중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고, 미래 사회에 맞는 새로운 역할을 주도적으로 탐색하며,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 참여 중심 워크숍 형태인 '생각배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즉, 이 프로그램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각자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스스로 생각하며, 이를 토론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며, 초등·중학교의 기존 교과목과 연계되는 통합·융합 교과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교육공급자와 학교 현장(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을 연결하여 현장 수요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서울 크리에이티브 랩

서울 크리에이티브 랩에서는 서울, 미래, 창조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회 수요에 맞는 다양한 인재양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정보통신, 예술,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공통적인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첫째로 일상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기존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뿐만 아니라 '기존의 어떤 방식대로는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교육들은 특화된 방법론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CPS(Creative Problem Solving)나 시스템 다이내믹스, 미래 시나리오 기법 등이 그것이다.

서울 크리에이티브 랩의 목표는 다양한 지식이나 방법론의 개발에 그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자신의 일로 여기는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많은 사람이 우리 곁의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 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서울 크리에이티브 랩은 필요한 지식과 방법론, 비슷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러한 수요를 창출하고 충족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서울 크리에이티브 랩 담당자들이 홀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 서울지역에는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수많은 기관이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서울의 미래 도시 사회의 수요가 서로 만나는 지점을 넓히는 것이 서울 크리에이티브 랩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장(오픈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며, 열린 장을 구현하는 방식(프로그램)이 '서울 콜라주 프로그램'이다. 서울 콜라주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각자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교류하며 새로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 콜라주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는 미래 지향성, 특화 역량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다. 즉,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하고(미래지향성), 어느 곳에도 없는 특화된 역량을 갖춘 사람을 키우며(특화 역량), 이 과정에서 함께 하게 된 사람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지속 가능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필요에 따라서 협동조합과 같은 조직 형성, 수료생이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의 확대, 다른 지역으로의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Ⅲ. 창조인재 양성을 위한 제언

모든 기관과 조직이 뛰어난 인재를 원한다. 하지만, 시대가 급속도로 변함에 따라 갖추어야 할 능력은 계속해서 확대·심화되고 있다. 창조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핵심은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인재양성 교육의 핵심 주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원하게 만들 것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창조적 인재 양성은 대학, 공공기관과 같은 특정 기관만이 단독으로 전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외부 전문기관 및 기업들이 공공부문과 함께

인재 양성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창조 아카데미, 캠퍼스CEO, 서울 크리에이티브 랩 등 서울시의 모든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들은 외부의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문제의식,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모아 그 관심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모임과 논의의 틀이 필요하다. 즉, 서울 크리에이티브 랩과 같이 구성원들의 지향점이 같은 큰 플랫폼을 만들고 이 안에서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되 내용적으로는 다양한 여러 기관이 함께 하는 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협업과 더욱 창조적인 결과물을 낳을 수 있다. 단, 이때 여러 기관이 함께 하는 오픈 플랫폼은 이를 운영하는 주체의 지휘 아래 조직화되어야 한다. 함께 하는 여러 사람, 기관과의 의견 충돌이나 이해관계의 상충문제를 해결하고,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미래의 가능성을 발굴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내의 시간을 견디는 운영주체가 있을 때만이 오픈 플랫폼이 기능하며 성공할 수 있다.

다양한 기회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능력을 육성하고, 이 능력을 바탕으로 소속된 조직과 사회의 부가가치를 높여 활발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서울, 미래 지향적 창조 도시 서울을 이룩하는 데 서울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